

“아픈 동생의 꿈까지 함께 노래합니다”

2016 희망을 쓴다 2 호남예술제 출신 성악 유망주 이산아군

해남 바닷가서 전남예고까지 4시간 통학하며 꿈 키워 형편 어렵지만 좌절않고 끝없는 연습...한예중 합격 영예

동트기 전 캄캄한 새벽 해남 바닷가 마을에 한 소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매일 새벽이면 찾아오는 신체 감각 때문에 고통과 싸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섯 살짜리 소녀. 선천성 심장질환과 뇌병변(1급), 시각장애(1급) 등 3가지의 장애를 한 몸으로 모두 감당해야 하는 여동생 나래(6·가평)를 집에 남겨두고 이산아(18·해남·사진)군은 지난 3년간 무언에 있는 전남예고로 향했다. 성악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왕복 4시간이 넘는 고단한 통학이었지만 성악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산아에게 기쁘고 행복 한 날이었다.

남의 집 농사일을 도우며 가족의 생계를 잇는 부모와 몸져누운 여동생의 응원 덕분에였을까. 아니면 노래를 좋아하는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재능 때문이었을까. 해남과 무안을 오가면서 성악가의 꿈을 놓지 않았던 산아는 최근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중) 수시모집에 합격해 올 봄 입학할 예정이다.

산아의 한예중 합격 소식은 해남 시골 마을과 전남예고에선 기적으로 여겨졌다. 남보다 늦은 중3 시절, 처음 성악을 시작한다 어려울 가정 형편 탓에 전문적인 레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갖은 역경을 극복하고 이뤄낸 결과여서다.

산아가 성악가의 꿈을 키우게 된 것은 여동생 나래 때문이었다. 장애를 가진 나래는 텔레비전 소리는 물론 부모의 목소리에조차 반응이 없었지만 유독 산아의 노랫소리에만 미세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미소를 짓는 듯 눈가가 잠시 떨린 게 전부였지만 산아는 틈나는 대로 동생에게 찬송가를 비롯해 다양한 노래를 들려줬다. 그런 모습을 지켜본 아빠는 목표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지인(성악전공)에게 부탁해 정기적으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다.

산아는 성악을 시작하자마자 두각을 나타냈다. 성악을 시작한 지난 2012년에만 전국학생 음악경연대회(독창부 1등), 호남학생 음악경연대회(독창부 최우수상), 목포예술제(성악 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이다.

도시 학생에 비해 부족한 레슨을 극복하려고 집, 학교, 들만, 거리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성연습을 한 덕분이었다. 하지만, 고교 진학 후 정기 레슨을 받은 친구들과 격차가 벌어진다고 생각될 때면 ‘성악의 꿈을 접어줄까’라는 우울한 의문도 자주 품었다.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 ‘서울에서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무런 답을 못하고 굳어지던 부모의 얼굴을 본 후로 성악을 시작한 것을 잠시나마 후회도 했다.

하지만, 1주일 후 아빠가 마련한 레슨비



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후원을 통해 서울에서 정기 레슨을 받게 되면서 마음을 다잡게 됐다. 몸이 아픈 여동생과 고생하는 부모, 이를모를 후원자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음악을 하지 않고 싶 수가 없었다. 그렇게 3년을 맹연습한 결과 지난해에는 광주일보가 주최한 호남예술제 성악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이 가파르게 늘었고 한예중 합격증도 손에 넣었다.

이산아 군은 “오페라 무대에 서는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라면서 “아픈 동생을 위해, 나를 위해 후원해주신 이들을 위해 노래하겠다. 성악으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파이팅 ~ 2016” 병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0시0분0초 광주시 동구 금남로 민주의 종각을 찾은 시민들이 2016년을 알리는 첫 타종이 시작되자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북구 공동체 라디오’ 이제 못듣나

운영난 광주시민방송, 10년만에 폐국 결정

광주시 북구지역 소소한 이야기들을 라디오 전파로 송출해온 광주시민방송이 예산 부족으로 개국 10년 만에 문을 닫는다.

3일 (사)광주 시민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이사회 회의를 거쳐 폐국을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광주 시민방송은 FM주파수 88.9 MHz, 출력 1W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으로 북구청 내에서 지난 2005년 12월1일 첫 전파를 쏘아 올렸다.

매일 오전 8시 방송을 시작, 밤 12시까지 16시간 동안 제작프로그램과 음악을 전달대와 중흥동·우산동 등 일부 지역에 송출해왔다. 방송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이뤄졌으며, 학교 운동회 소식 등 주변의 소박하고 따뜻한 이야기들을 주민들에게 들려줬다.

매년 3000여만원에 이르는 운영비는 5개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마련해 왔다. 북구가 매년 1350만원을 지원했고, 전

남대, 북구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북구청에 인계된지,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등 4개 단체가 나머지 운영비를 부담해왔다.

광주 시민방송은 지역 밀착형 방송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좁은 가정권과 해마다 제대로 충당되지 않는 운영비 때문에 결국 문을 닫게 됐다.

지난해 말 북구의회는 가정권이 좁아 효율성이 떨어지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다른 단체들의 운영비 부담률이 낮아 예산 135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광주 시민방송은 가정권을 넓히기 위해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출력을 높여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했으나,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의 특성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 시민방송 관계자는 “아직 최종 폐국일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벌써 주변에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마지막 특집 방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7:33 달돋이 01:56 달질 13:24

체감 온도 낮이요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구름많음	4/11	보성	구름많음	3/10
목포	구름많음	5/10	순천	구름많음	4/13
여수	구름많음	6/12	영광	구름많음	3/9
나주	구름많음	3/11	진도	구름많음	2/12
완도	구름많음	4/12	진주	구름많음	5/10
구례	구름많음	0/11	군산	구름많음	5/8
강진	구름많음	1/11	남원	구름많음	2/10
해남	구름많음	1/12	축산도	구름많음	8/10
장성	구름많음	3/9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북동	0.5~1.0
	면바다	북서~북	0.5~1.5	북~북동	0.5~1.5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	북서~북	0.5
	면바다(동)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서부	면바다(서)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생활지수

- 체감온도: 관심
- 동파: 낮음
- 뇌졸중: 보통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9:10	02:20
여수	21:15	14:58
	04:48	10:41
	16:34	22:57

주간 날씨

날짜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날씨	☁	☁	☁	☁	☁	☁	☁
비율	2/5	-1/6	0/3	-2/2	-3/2	-3/2	-3/3

손자 본 지리산 반달곰

환경부, 새 개체 발견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 한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

토종 야생곰이거나 사육곰일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복원사업을 위해 지리산에 방사된 곰들이 낳은 ‘손자세대’ 반달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9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포획한 반달가슴곰 한 마리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파악되지 않은 개체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새로 확인된 곰은 체중 60kg인 3년생

수컷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아빠 곰은 2005년 방사된 러시아산으로 파악됐다. 엄마 곰은 기존 반달곰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유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이 방사한 곰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변에 사육시설이 없다는 점에서 사육곰 가능성이 적고 토종 야생곰일 가능성도 희박하다. 이 같은 이유로 엄마 곰은 지리산에 방사된 곰들이 야생에서 낳은 ‘자연출산 1세대’로, 이번에 발견된 곰은 그런 어미가 낳은 ‘손자세대’로 추정된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고용청, 사업장 70곳 120건 시정 조치

여수시·순천시 등 전남지역 지방자치단체 4곳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했다가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청소년 고용 취약업체 60곳, 지방자치단체 4곳, 농업 8곳 등 모두 72개 사업장에 대해 수시감독을 벌인 결과, 법규를 위반한 70곳, 120건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시와 보성군 등 지방자치단체 4곳의 비

정규직 근로자 최저임금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131명에게 차액분 98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읍시청 등 청소년 고용 취약업체 60곳에 대한 점검 결과, 58곳에서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최저임금 미지급 37건(41%), 근로조건 미명시 35건(39%), 임금 미지급 18건(20%) 1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문의 062 383-6400